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정보 이용 분석 연구*

- 청소년과 대학생의 차이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Perceptions and Information Use for Library: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for the Adolescents and College Students**

이 정 미 (Jeong-Mee Lee)**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과 대학생 이용자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정보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각 요소들과 이에 연관된 상관관계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데이터는 설문조사로 수집,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이용자들은 도서관 정보원은 신뢰하나 실제 탐색에는 탐색엔진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쉽게 빠르게 획득가능한 정보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보원 비교 등 각 요소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상당히 많은 요소들 사이의 상호연관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look at overall adolescents' and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library and explore the sources and their related variables as well as find out related issues of perceptio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use of them.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survey and analyzed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using the data. The result shows the population users preferred search engine so much over library as their information search tool even if they trust library information sources more, also, they tend to seek information sources when it has easiness and fastness to get. Correlation analysis such as χ^2 and Spearman were implemented and the result of the correlation shows that many factors of this study covered-such as comparison of information sources-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each other.

키워드: 이용자연구, 도서관인식, 집단별 정보이용, 도서관 정보이용, 탐색엔진 정보원
User Studies, Perceptions of Libraries, Information Uses by Groups,
Library Information Sources, Search Engine Information Sources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mlee@swu.ac.kr)

논문접수일자 : 2015년 8월 24일 논문심사일자 : 2015년 9월 1일 게재확정일자 : 2015년 9월 14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3): 291-314, 201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5.26.3.29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터넷을 필두로 한 정보기술의 발달은 이용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 접근 가능성은 정보를 확인한다는 단편적인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10여년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던 정보기술 환경으로의 변화를 체험하게 한다.

현대의 정보 탐색자는 신속한 정보접근을 아주 적은 노력으로 얻고자 하며 탐색을 통해 얻은 정보의 질에 대한 피드백 결과를 통해 해당 정보의 가치를 판단한다(Byrum 2005). 이러한 변화들은 가시적으로 이용자가 보다 편하고 빠르게 접근가능한 탐색엔진의 급성장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현상일 것이다.

이러한 정보 기술 환경에서 도서관은 물리적으로나 그 존재적 가치에서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레벨의 경쟁자와 정보 이용자를 사이에 둔 경쟁을 벌여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도서관은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며 이용자를 재유입할 능력이 어느 정도 있었으나 현재의 도서관은 간단히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변화의 정도가 강해져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변화하고 자신의 이용자를 다시금 모아내는데 있어 현실적인 한계에 도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도서관은 책을 보존하고 이용하는 공간에서 이제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사회화하는 장소로서 변화해가고 있다(Anglada 2014).

이러한 이용자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OCLC 등은 이용자의 인식변화를 장기간에 걸쳐 연구해왔으며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이용자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이 연구를 통해 아직까지도 도서관에 대한 가장 커다란 인식은 “책”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Gauder 2011).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경우 아직까지는 이렇듯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서관에 대한 인식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용자에 대한 이해와 도서관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중요한 토대로서 OCLC 유사 연구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도서관은 아직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특특히 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책자자료의 보급과 정보기술이 안착된 디지털 자료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그 공공의 의미가 지대하다. 정보 이용자는 점점 더 현명하고 수준 높게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일상에서 스스로 훈련받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정보의 보고라고 일컬어지는 도서관은 혁신에 가까운 변화를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입증해야 한다는 쉽지 않은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바로 이런 현실적 문제제기가 이용자의 관점에서 도서관의 학술적, 역사적 가치 부여에 대해 생각해보고 도서관의 경쟁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 여기는 이유이다.

이런 이유에서 본 연구는 우선 가장 두드러질 것이라 예상되는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도서관에 대한 인식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예상한 두 이용자 집단은 청소년과 대학생

으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09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통계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과 대학생의 인터넷 이용률은 100%(99.8-99.9%)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연령별 구분에 따라서 확인한 결과 이 두 집단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구분되나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층의 보다 확연한 구분을 위해 10대 청소년과 대학생으로 구분하고자 하였으며 앞서 확인한 인터넷진흥원의 실태조사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이용률을 보인 두 집단이다.¹⁾ 본 연구에서 인터넷 이용률을 근거로 이용자 집단을 선정한 이유는 20세기 이후 사회에 가장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정보기술이 인터넷이라 판단했음이 가장 간단하며 중요한 선택의 이유이다.

청소년 이용자 집단의 연구는 정보활용능력에 대해서나(송기호 2011)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들(하은혜, 장윤금, 권나현 2011)이 가장 대표적인 이용자집단 연구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의 도서관 인식에 대해서는 최근 하나의 연구(이정미 2015)가 제시된 바 있다.

대학생에 대한 연구들은 성격유형에 따른 정보이용행태에 대한 연구(김현희, 장유리 2014), 대학생의 특정 시기 정보이용과 일상생활 정보이용에 대한 연구(권나현 외 2013)들이 존재하나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집단의 비교와 관련된 연구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청소년과 대학생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했으며 이 두 집단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두 집단을 비교 분석하는 가운데 2015년 현재 도서관 이용자의 인식 변화를 가능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사회 뿐 아니라 도서관에 있어서도 중점적인 이용자로 자리매김할 이 두 집단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그 차이를 분석한 가운데 도서관의 방향성을 모색할 기초 자료로 사용하게끔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1.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만 13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중고등학교 재학생)과 19세에서 29세 사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정보이용에 대한 개괄적인 양상, 도서관과 탐색엔진 정보원에 인식 및 만족도 등을 살펴보고 더불어 각 요소들의 관계성을 찾고자 시도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연구대상 이용자 집단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정보이용은 일정한 양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 연구문제 2.** 청소년과 대학생 이용자 집단의 도서관인식과 정보이용은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것이다.
- 연구문제 3.** 청소년과 대학생 이용자 집단의 정보이용에 관련된 각 요소들은 서로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1) 10세 이전은 85%, 30대가 98%, 40대 84% 등의 인터넷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21세기 도서관과 정보이용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변화와 정보이용에 대한 가장 중요한 최근 연구는 앞서 제시한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이용자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OCLC 연구라 할 것이다. OCLC는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이용자의 정보이용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고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살펴보았으며 2005년과 2010년 두 개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를 제시하였다(De Rosa 2005; Gauder 2011). 2005년의 연구보고서는 도서관과 정보원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로 도서관과 정보원의 사용, 친밀성 등에 대한 인식조사와 인터넷 이용률, 도서관 브랜드, 전자정보원의 역할 등에 대한 개괄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도서관의 브랜드는 역시 책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이용자가 검색엔진을 주요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도서관을 전자자원의 접근 장소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10년 연구보고서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총체적인 이용자 인식조사를 통해 그 맥락상의 의미와 커뮤니티와의 관계에 대해 재조명하였다. 2010년의 연구보고서는 도서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중요한 문제 제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도서관의 브랜드는 여전히 “책”이라는 의미가 가장 중요시되고 있으며 도서관이 가치높은 커뮤니티의 자산이라는 이용자의 인식은 변함이 없으나 도서관의 역할이 책자자료나 정보의 접근이외에 커뮤니티안에서 이용자의 각종 문화생활에 더욱 다양하게 접촉하고 있

음을 나타내는 변화를 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세대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제시되었다. 사회의 변화에 대해 탐색, 사회화, 모바일 기술과의 융합, 전자자료의 확산으로 인한 독서의 의미 재조명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도서관이 책자자료 접근 뿐 아니라 커뮤니티의 기술 집약체로서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 디지털 시대의 정보탐색자의 변화를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2010년 OCLC 연구보고서의 경우 이용자의 정보행태를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고 있다(Connaway 2010). 이 연구는 이용자 정보행태에 대한 많은 연구들 중 12개 연구를 선택해 이용자의 요구와 도서관에 맞추어 분석한 것으로 이 중 주목해야 할 연구로 앞서 제시한 OCLC의 2005년 연구보고서와 대학생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정보자원의 이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었으며 이의 이용자의 요구와 인식, 도서관에 대한 이용을 살펴보는 다수 연구 결과를 통해 학문에 따라 정보이용의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것, 전자저널의 중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 구글과 다른 검색엔진의 사용이 급증했다는 것, 정보시스템에서 정보의 발견과 더불어 접근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도서관은 다양한 정보요구와 정보행태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 도서관 정보시스템이 정보의 발견에서부터 접근까지 틈없는 정보제공을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 디지털 포맷과 콘텐츠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등의 함축적인 의미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

는 연구결과는 이용자가 변화했다는 것, 정보 이용에 있어 전자적 형태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는 것, 탐색엔진이 생각보다 더욱 더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 등이며 이러한 현실에서도 도서관은 아직도 이와 같은 변화에서 경쟁적 위치를 점하고 있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2.2 청소년과 대학생의 정보이용

청소년의 정보이용에 대한 통합적 연구들은 주로 정책연구의 형태로 진행된 연구들이며 정책을 위한 기반연구이거나 인터넷 이용에 따른 청소년의 행동변화 연구(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 연구로 청소년의 도서관 인식과 정보이용을 살펴본 연구(이정미 2015)가 존재한다. 이외 대부분의 청소년 이용자에 대한 연구들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특정 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에 대한 연구(하은혜, 장윤금, 권나현 2011)들이나 학교도서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정보활용능력교육의 위상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연구(송기호 2011),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보이용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를 제시하고자 한 연구(정진수 2009) 등이 있다. 청소년 이용자의 정보이용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각도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주로 정보활성화 정책연구 등이 주였다면 최근의 연구경향은 도시 청소년과 농어촌 청소년의 일상 정보행태를 비교 분석한 연구(박현모, 이지연 2013), 청소년의 가상 정보 공간에서의 정보 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김성은, 이지연 2013)와 같이 세분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문헌정보학 이외의 분야에서 진행되는 연구 사례 중 청소년의 인터넷 식생활 정보이용에 대한 연구(이경혜, 강현진, 허은실 2002) 또는 인터넷 사용과 청소년의 비행과의 관계를 짚어보고자 한 연구(이성식, 전신현 2012)들이 존재하며 방송, SNS와 같은 정보기술의 이용이 청소년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

대학생에 대한 연구들은 그 연구 유형과 방법에 있어 아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앞서 제시한 것처럼 성격유형에 따른 정보 이용행태에 대한 연구(김현희, 장유리 2014), 대학생의 특정 시기 정보이용과 일상생활 정보이용에 대한 연구(권나현 외 2013) 등이 있다. 또한 대학생의 학습활동을 바탕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정보행태를 살펴본 연구(이은주, 이제환 2011), 심리학적 기제를 도입해 대학생의 정보 탐색행위를 살펴본 연구(최문정, 정동열 2013a; 최문정, 정동열 2013b), 정보윤리와 연관해 대학생의 정보행태를 분석한 연구(장혜란 2013) 등이 존재한다.

대학생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이용 연구는 문헌정보학 이외에도 다수 진행되는 연구로서 문헌정보학의 경우 대부분 대학도서관, 대학도서관의 정보서비스에 기반해 이루어졌다가 최근 들어 그 양상이 다양해져 정보기기의 활용 및 탐색행태, SNS 이용과 연관된 정보행태, 또는 다학제적 영역으로 확산되어 연구되는 추세이며, 커뮤니케이션이나 언론, 정치등과 같은 주제 분야에서도 활발히 연구되는 추세이다.

도서관 인식과 정보 이용에 대한 통합적인 이용자 조사연구가 연구 가치를 더하기 위해서는 조사 규모를 방대하게 장기간에 걸쳐 종합

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진행되지 않았다.

특정 이용자 집단만이라도 먼저 도서관 인식과 정보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이후 종합적인 연구 진행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필요가 시급하다.

3. 연구내용과 방법

3.1 연구 개요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서울지역 청소년(중고등학교 재학생)과 대학생 각 114명을 임의로 섭외, 총 22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데이터는 2015년 3월 23일에서 5월 25일까지 2개월 동안 수집·분석되었다.

설문지는 도서관 인식과 정보원 이용에 초점을 맞춘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도서관 및 정보원 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 총 7문제, 정보원의 인식에 대해 도서관과 탐색엔진을 비교한 5개의 문항, 도서관 및 도서관서비스의 개선점을 위한 4개의 문항, 도서관과 탐색엔진 정보원 요소별 만족도를 묻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구성에서 평가요소들의 선정은 대다수의 연구, 분석보고서등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평가요소를 사용하고자 방대한 평가요소 확인을 거쳤으며 이 중 보편적이라 판단되는 요소들만을 뽑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도서관과 탐색엔진 정보원의 비교를 위한 평가요소로는 신뢰성, 정확성, 신속성, 편리성, 사용용이성이라는 보편적인 평가요소를 사용해 비교하였고, 정보원의 요소별 만족도의 경우 이

용 만족도와 신뢰도 두 가지 평가요소를 뽑아 도서관과 탐색엔진 정보원 각각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절 대학생과 청소년의 도서관 인식 및 정보원이용 분석에서 그 결과를 볼 수 있다.

3.2 분석 방법

수집 데이터는 IBM SPSS Statistics 23을 사용해 분석되었으며 먼저 모든 대상이용자 집단의 통계분석을 살펴본 후 청소년과 대학생 집단으로 나누어 결과를 살펴보고, 이후 χ^2 교차분석을 통해 집단 간의 유의미한 요소들을 추출해 맥락적 분석을 실행하였다. 청소년과 대학생 집단의 차이는 그 빈도를 바탕으로, 교차분석 결과로 나타난 유의미한 요소들은 그 상관관계를 통해 의미를 분석, 설명하고자 하였다. 각종 그래프는 청소년 이용자와 대학생 이용자의 차이를 볼 수 있도록 대부분 막대그래프를 사용하였으며 시각적 편이를 위해 엑셀프로그램을 사용해 재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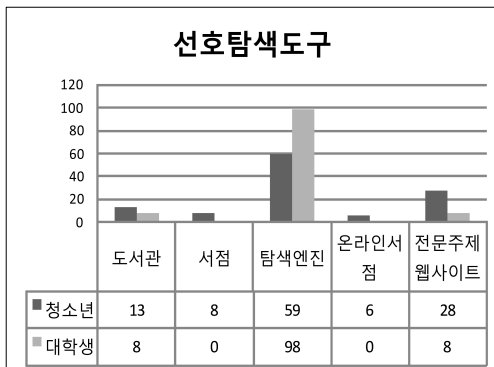
4. 대학생과 청소년의 도서관 인식 및 정보원 이용

4.1 이용자 특성과 도서관 인식 개괄

설문참가 청소년의 남녀구성은 남자가 106명, 46%이며 여자가 122명, 54%이다. 청소년과 대학생의 구성은 각 114명으로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선호하는 탐색도구를 묻는 첫 번째 문항에서

가장 많은 응답은 검색엔진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157명(69%)이 검색엔진을 가장 선호하는 정보원 검색도구라고 응답했다. 전문 주제웹사이트와 도서관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년보다는 대학생이 훨씬 높은 비율(청소년 52%, 대학생 86%)로 검색엔진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 응답자의 경우 도서관이나 온라인 서점, 전문주제 웹사이트 등 검색엔진 이외의 검색도구를 사용하는 비중도 48%에 이르렀으나 대학생의 경우 서점과 전문주제 웹사이트를 선호한다는 대학생이 각 7%로 검색엔진 이외의 검색도구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인 정보검색도구인 도서관, 서점, 검색엔진, 온라인 서점, 전문주제 웹사이트 중에서 선택하게 했으며 응답결과는 다음 <그림 1>과 같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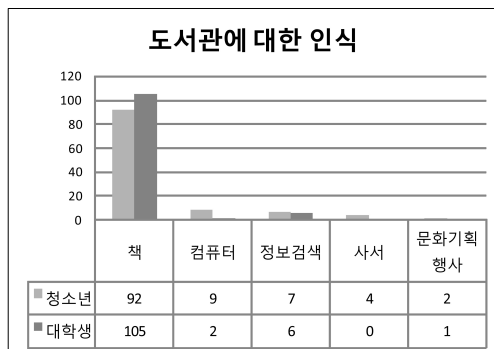
<그림 1> 선호검색도구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현상을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청소년 이용자가 보다 다양한 정보검색도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정보요구를 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루어 짐작컨대 청소년 이용자가 대학생 이용자에 비해 보다 많은 정보검색도구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정보검색행태를 발현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 대부분은 책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 이용자와 대학생 이용자의 차이가 그리 많이 나지 않았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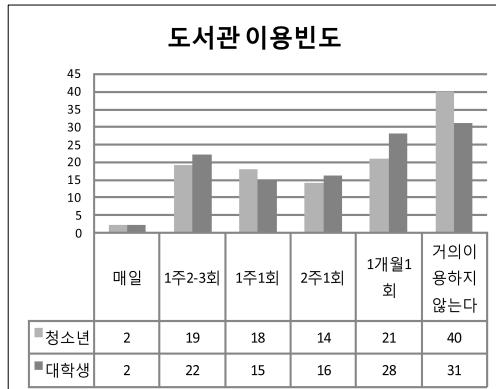
흥미로운 사항 중 하나는 청소년 이용자 중 4명은 사서를 떠올렸으나 대학생 이용자는 아무도 사서를 떠올리지 않았다. 이는 어쩌면 문헌정보·도서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던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림 2> 도서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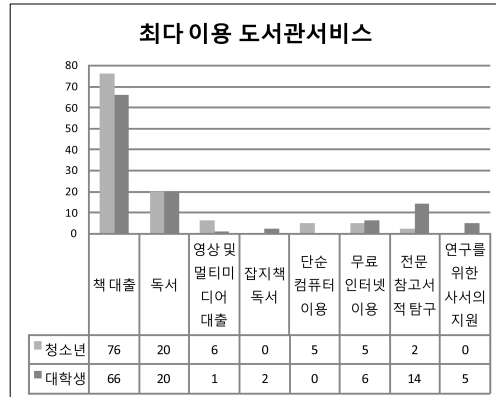
절반 이상의 응답자(52%)가 도서관 서비스를 2주 1회 이하로 이용한다고 응답함으로써 도서관이용이 상당히 저조함을 알 수 있었으며 청소년 이용자와 대학생 이용자에 있어 별 다른 집단간의 차이는 볼 수 없었다(<그림 3> 참조). 다소 안타까운 결과의 하나로서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좀 더 쉬워진 정보검색환경에서

도서관의 존재나 이용가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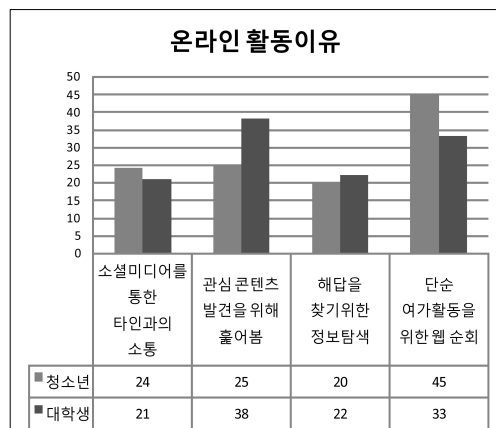
〈그림 3〉 도서관 이용빈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 서비스는 책대출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청소년 이용자가 책 대출이외의 영상, 멀티미디어자료의 대출이 다소 나타난 반면 대학생 이용자의 경우 전문참고서적 탐구나 연구를 위한 사서의 지원에서 청소년 이용자와 구분되는 응답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 집단의 특성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의 이용 양상이 다름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된다. 앞서 도서관에 대한 인식에서 소수의 청소년 이용자가 사서를 떠올린다는 응답이 있었음에도 도서관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사서의 지원이라 답한 청소년 이용자는 볼 수 없었는데 이는 청소년 이용자에게 사서는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이라는 특성상 연구를 지원하는 전문인이라고 인식되기 보다는 상담자, 학습조력자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었기 때문은 아닌가 해석해본다. 최다이용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세부사항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최다이용 도서관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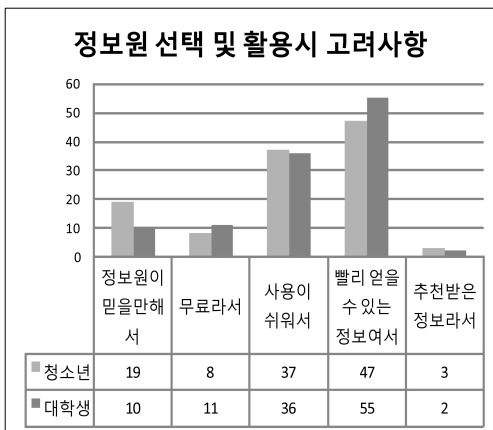
온라인 활동이유에 대한 응답은 어느 하나의 응답이 대다수로 나온 것은 아니나 청소년 이용자와 대학생 이용자의 집단 간 차이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항목으로 청소년 이용자가 주로 단순여가에 그 비중을 높이 두고 있었다면 대학생 이용자의 경우 관심 콘텐츠 발견을 위해 온라인을 훑어보는 양상을 보여 청소년 이용자보다 대학생 이용자가 온라인 활동에 있어 잠재적 정보 요구에 기반한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항목이다(〈그림 5〉 참조). 이외 소



〈그림 5〉 온라인 활동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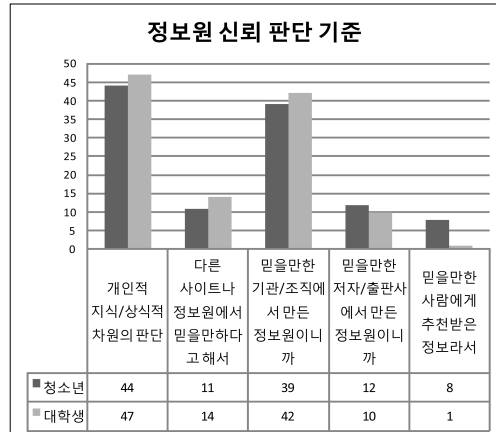
설미디어 사용이나 해답을 위한 정보탐색은 두 집단 모두 유사한 응답율로 나타났다.

정보원 선택 및 활용의 고려사항을 묻는 문항에서 다수의 응답자가 사용이 쉬워서라거나 빨리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대답함으로써 청소년 이용자와 대학생 이용자 두 집단 모두 정보원의 사용용이성과 신속성이 정보원 선택에 가장 커다란 기준임을 알 수 있었는데 청소년 이용자의 경우 정보원이 믿을만해서 해당 정보원을 선택한다는 응답을 대학생 이용자 보다 높은 비율로 하고 있었으며 대학생 이용자는 다른 어떤 항목보다 빨리 얻을 수 있어서 해당 정보원을 사용한다는 응답을 해 신속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임을 볼 수 있었다(〈그림 6〉 참조).



〈그림 6〉 정보원 선택 및 활용 시 고려사항

정보원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많은 응답자가 개인적 지식이나 상식적 차원의 판단 또는 믿을만한 기관/조직에서 만든 정보원이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이는 청소년과 대학생 두 집단이 유사했다(〈그림 7〉 참조).



〈그림 7〉 정보원 신뢰 판단 기준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대학생은 믿을만한 사람에게 추천받은 정보라서 믿는다는 응답이 단 한명에 불과했으나 청소년 집단은 8명의 응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인적 정보자원에 대해 청소년 이용자가 더욱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은 보다 쉽고 빠르게 정보원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판단이 정보원을 신뢰하는 가장 큰 기준이었으며 믿을만한 기관이나 조직에서 만든 정보원이 아닌 다른 기준은 정보원을 신뢰하는 데 있어 미미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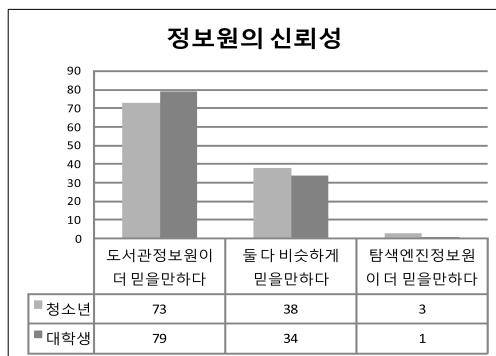
4.2 정보원에 대한 인식 및 정보서비스 개선점

4.2.1 정보원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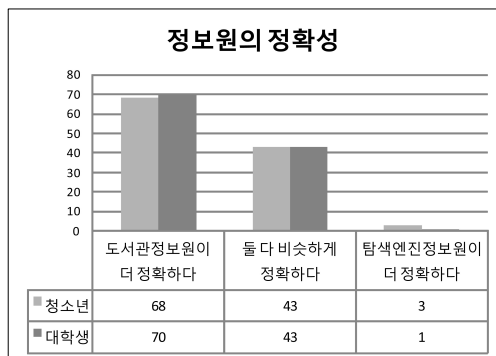
도서관 정보원과 탐색엔진 정보원의 신뢰성, 정확성, 신속성, 편리성, 사용용이성을 확인하고자 했던 정보원 속성에 대한 비교 질문들에 대한 결과는 〈그림 8〉에서 〈그림 12〉에 그래프

를 포함하였다.

먼저 정보원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도서관 정보원이 더 신뢰할 만 하며 믿을 수 있는 정보원이라 응답하고 있었기에 두 집단의 차이는 볼 수 없었다(〈그림 8〉, 〈그림 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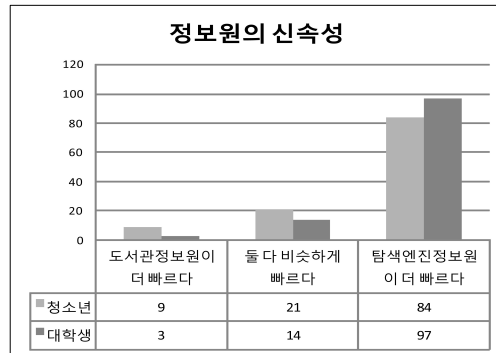
〈그림 8〉 정보원의 신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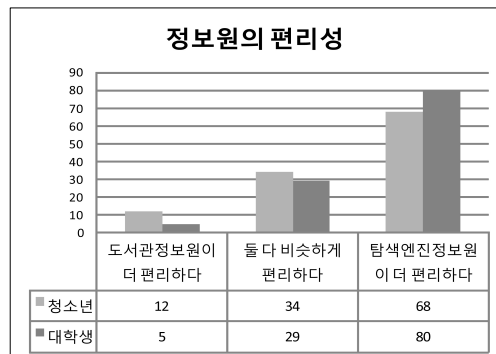
〈그림 9〉 정보원의 정확성

정보원의 신속성과 편리성, 사용용이성의 경우 두 집단의 응답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볼 수 있었으며 해당 결과, 대학생 이용자가 청소년 이용자에 비해 탐색엔진을 더욱 신속하게 수집 가능한, 편리하며 사용이 쉬운 탐색도구라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앞서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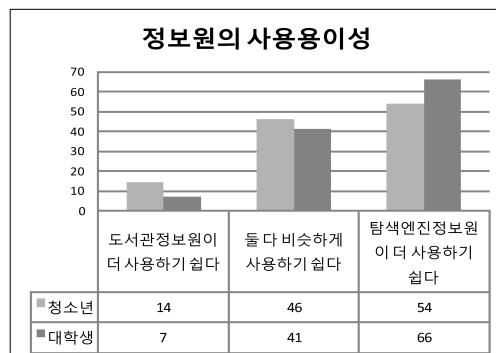
생 이용자의 월등한 탐색엔진 선호도와 연결지어 생각해 봄직한 결과라 여겨진다(〈그림 10〉, 〈그림 11〉, 〈그림 12〉 참조).



〈그림 10〉 정보원의 신속성



〈그림 11〉 정보원의 편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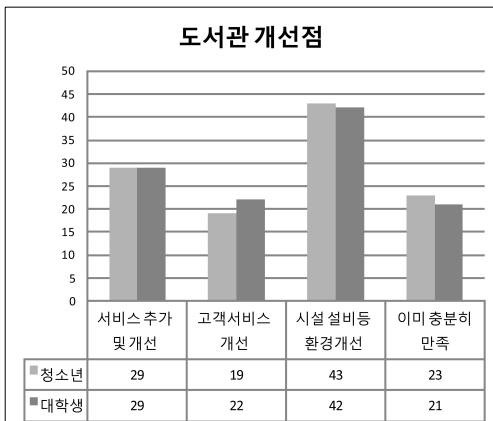


〈그림 12〉 정보원의 사용용이성

4.2.2 정보서비스 개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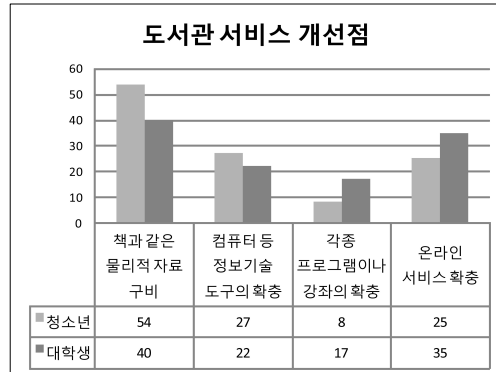
도서관 기반 정보서비스의 개선점을 묻는 부분은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가장 커다란 범주의 질문이 도서관 개선점을 시작으로 각 항목의 세부사항에 대한 질문을 나누어 구성하였다.

먼저 도서관의 개선점 전반에 대한 질문은 시설·설비 등 환경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양 집단 모두 가장 커다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충분히 만족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그림 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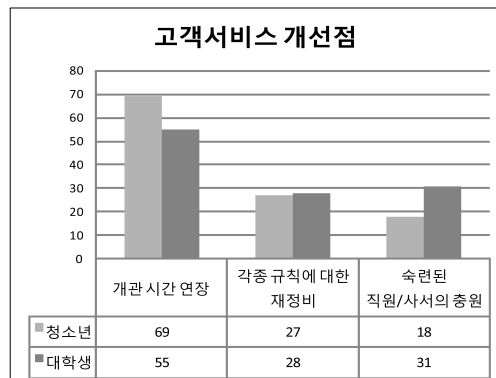
〈그림 13〉 도서관 개선점

도서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많은 응답자가 책과 같은 물리적 자료의 구비라 응답했으며 대학생 이용자 보다 청소년 이용자가 물리적 자료구비가 더욱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 이용자의 경우 각종 프로그램이나 강좌의 확충, 온라인 서비스 확충에 대해 청소년 이용자의 응답에 비해 높은 비율로 시급하다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4〉 참조).



〈그림 14〉 도서관서비스 개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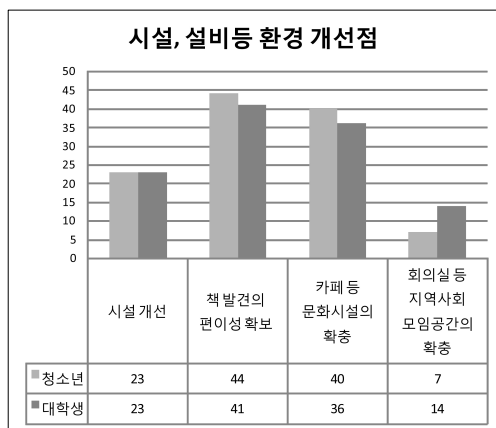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소년 이용자는 책이나 컴퓨터 등 물리적 자료의 부족이 도서관 서비스의 문제로 느끼고 있는 반면, 대학생 이용자의 경우 책, 컴퓨터 등 물리적 자료의 부족도 시급하지만 각종 프로그램의 확충이나 온라인 서비스 확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개선점이라 느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5〉 고객서비스 개선점

고객서비스 개선점에 대한 응답은 두 집단 모두 개관시간 연장을 가장 중요한 고객서비스 개

선점으로 두었으며 대학생은 청소년 이용자에 비해 숙련된 직원/사서의 충원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5〉 참조). 앞서 제시한 결과 중 대학생 이용자 중 소수라 하더라도 연구를 위한 사서의 지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 서비스로 응답한 만큼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대응하는 사서의 훈련이나 전문성 강화 방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림 16〉 시설·설비 등 환경 개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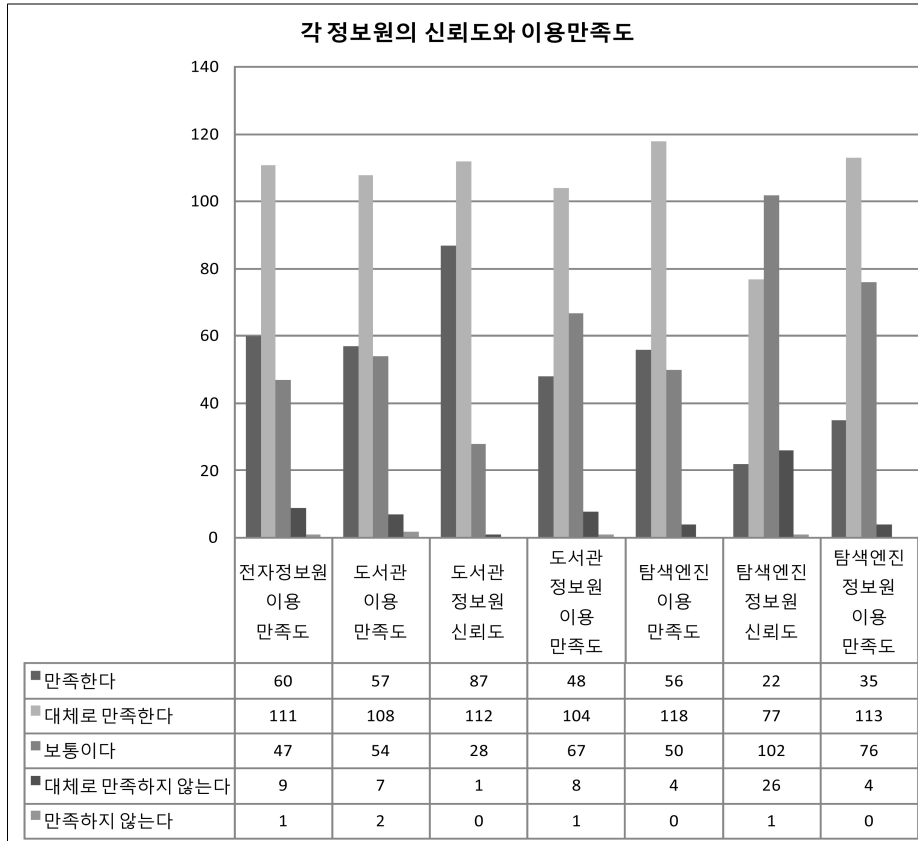
시설·설비 등 환경의 개선점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은 책 발견의 편이성 확보와 카페 등 문화시설의 확충으로 나타났다(〈그림 16〉 참조). 책 발견의 편이성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현재 도서관의 자료분류와 서가 배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부분으로 이는 본질적인 분류·배가 시스템의 불편함에 기인한 것인지 도서관 이용법 등 이용자의 교육 부족에서 기인한 것인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결론 내려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회의실 등 지역사회 모임공간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청소년 이용자는 7명, 대학생 이용자는 14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많은 도서관이 지역사회 모임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서관은 지역사회 모임공간으로의 의미는 충분치 않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4.2.3 정보원의 신뢰도 및 이용만족도

설문 구성의 마지막은 정보원의 신뢰도와 이용만족도를 확인하고자 한 부분으로 전자정보원의 이용만족도를 시작으로 도서관이용, 도서관정보원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도서관정보원의 신뢰도를 나누어 질문하였으며 탐색엔진도 동일하게 탐색엔진 자체의 만족도, 탐색엔진정보원 이용만족도와 탐색엔진 정보원 신뢰도를 각각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끔 하였다(〈그림 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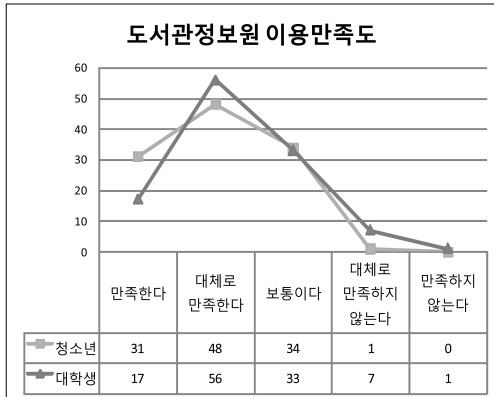
〈그림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탐색엔진 정보원의 신뢰도를 제외한 모든 6개 항목에서 96%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탐색엔진 정보원의 신뢰도는 다른 항목과 비교해 낮은 수치로 88%의 응답자가 만족한다와 대체로 만족한다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이용자와 대학생 이용자 양 집단은 모두 전자정보원이용, 도서관이용, 도서관정보원이용, 도서관정보원 신뢰도, 탐색엔진 만족도, 탐색엔진정보원 이용만족도에 대체로 만족한다 이상의 수치를 보임으로써 정보원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치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며 정보원의 신뢰도에 있어서는 당연한 결과인 듯 도서관정보원에 비해 탐색엔진정보원은 그리 신뢰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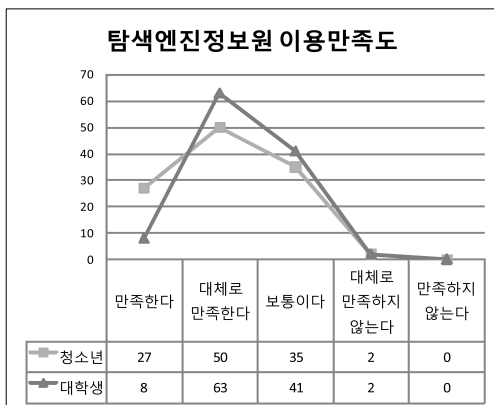
〈그림 17〉 각 정보원의 신뢰도와 이용만족도

이 수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이용자와 대학생 이용자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7개 항목 모두에서 동일한 양상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었으며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이 중 흥미로운 결과로 도서관정보원 이용만족도와 검색엔진정보원 이용만족도 그래프만을 포함하였다. 다음 〈그림 18〉과 〈그림 19〉는 청소년 이용자와 대학생 이용자의 도서관정보원 이용만족도와 검색엔진정보원 이용만족도를 구분하여 도식화한 것으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검색엔진정보원의 이용만족도 결과이다. 이 결과를 앞서 제시한 선호검색도구의 결과와

연관해 살펴보면 청소년 이용자와 대학생 이용자 두 집단은 모두 검색엔진정보원을 선호하고 이 중 대학생 이용자는 검색엔진정보원을 압도적으로 높은 선호검색도구로 응답하고 있었으나 검색엔진정보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대학생 이용자의 경우 “만족한다”라기 보다 “대체로 만족한다”라는 답변을 보임으로써 어느 정도 만족도를 유지한다면 해당 정보원이 완벽한 만족도를 주지 못한다하더라도 다른 변인, 즉 정보원의 신속성이나 편이성, 사용용이성에 따라 검색도구를 선택·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림 18〉 도서관정보원 이용만족도



〈그림 19〉 탐색엔진정보원 이용만족도

4.3 집단들의 유의미한 차이

청소년과 대학생 집단의 차이를 앞서 빈도분

석에 의해 살펴봄과 더불어 각각의 요소들에 다방면의 χ^2 교차분석을 통해 집단 간의 유의미한 요소들을 추출해 맥락적 분석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통합데이터의 각 항목들에 대한 교차분석을 진행하고 이 후 청소년 이용자 데이터와 대학생 이용자 데이터 각각을 나누어 교차분석을 진행했고 교차분석의 결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항목들이 서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 결과를 모두 제시하기보다 각각의 데이터를 비교한 가운데 모든 데이터(통합, 청소년 이용자, 대학생 이용자)에서 유의미한 교차분석 결과를 나타낸 요소들만 따로 심도있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1〉은 교차분석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데이터를 통합, 청소년 이용자, 대학생 이용자 데이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 1〉 참조). 이 중 세 개의 데이터 그룹에서 모두 유의미하다 분석된 요소들은 통합 데이터 안에 밑줄로 다른 항목과 구분해 표시하였으며 이용자그룹에 따른 교차분석의 경우 그 자체로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기에 표에 포함시키고 4.4 정보이용에 있어서의 집단별 차이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다음 절과 결론부분에서 함축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표 1〉 교차분석에서 유의미하게 나온 데이터의 그룹별 비교

통합	청소년	대학생
• 이용자그룹 vs. 선호탐색도구	N/A	N/A
• 이용자그룹 vs. 도서관 인식		
• 이용자그룹 vs. 최다이용도서관서비스		
• 이용자그룹 vs. 전자정보원이용만족도		
• 이용자그룹 vs. 도서관정보원이용만족도		
• 이용자그룹 vs. 탐색엔진정보원만족도		
• 이용자그룹 vs. 탐색엔진정보원이용만족도		

통합	청소년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호탐색도구 vs. 정보원신뢰성 • 선호탐색도구 vs. 정보원정확성 • 선호탐색도구 vs. 정보원신속성 • 선호탐색도구 vs. 정보원편리성 • 선호탐색도구 vs. 정보원사용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호탐색도구 vs. 정보원신뢰성 • 선호탐색도구 vs. 정보원정확성 • 선호탐색도구 vs. 정보원신속성 • 선호탐색도구 vs. 정보원편리성 • 선호탐색도구 vs. 정보원사용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호탐색도구 vs. 도서관정보원신뢰도 • 선호탐색도구 vs. 탐색엔진정보원만족도 • 선호탐색도구 vs. 정보원정확성 • 선호탐색도구 vs. 정보원신속성 • 선호탐색도구 vs. 정보원편리성 • 선호탐색도구 vs. 정보원사용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인식 vs. 정보원신뢰성 • 도서관인식 vs. 정보원정확성 • 도서관인식 vs. 정보원편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인식 vs. 정보원신뢰성 • 도서관인식 vs. 정보원정확성 • 도서관인식 vs. 정보원편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인식 vs. 정보원신뢰성 • 도서관인식 vs. 정보원정확성 • 도서관인식 vs. 정보원편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이용빈도 vs. 정보원편리성 • 도서관이용빈도 vs. 정보원사용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이용빈도 vs. 정보원편리성 • 도서관이용빈도 vs. 정보원사용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이용빈도 vs. 정보원편리성 • 도서관이용빈도 vs. 정보원사용용이성 • 도서관이용빈도 vs. 도서관이용만족도 • 도서관이용빈도 vs. 도서관정보원신뢰도 • 도서관이용빈도 vs. 정보원신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다이용도서관서비스 vs. 정보원신뢰성 • 최다이용도서관서비스 vs. 정보원정확성 • 최다이용도서관서비스 vs. 정보원편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다이용도서관서비스 vs. 정보원신뢰성 • 최다이용도서관서비스 vs. 정보원정확성 • 최다이용도서관서비스 vs. 정보원신속성 • 최다이용도서관서비스 vs. 도서관이용만족도 • 최다이용도서관서비스 vs. 도서관정보원이용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다이용도서관서비스 vs. 정보원신뢰성 • 최다이용도서관서비스 vs. 정보원정확성 • 최다이용도서관서비스 vs. 정보원신속성 • 최다이용도서관서비스 vs. 정보원편리성 • 최다이용도서관서비스 vs. 정보원사용용이성 • 최다이용도서관서비스 vs. 도서관이용만족도 • 최다이용도서관서비스 vs. 도서관정보원이용만족도 • 최다이용도서관서비스 vs. 도서관정보원신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원활용고려사항 vs. 정보원정확성 • 정보원활용고려사항 vs. 정보원편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원활용고려사항 vs. 정보원편리성 • 정보원활용고려사항 vs. 도서관정보원신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원활용고려사항 vs. 도서관이용만족도 • 정보원활용고려사항 vs. 정보원정확성 • 정보원활용고려사항 vs. 정보원편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원신뢰판단기준 vs. 정보원신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원신뢰판단기준 vs. 도서관이용만족도 • 정보원신뢰판단기준 vs. 정보원신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원정확성 vs. 도서관정보원신뢰도 • 정보원정확성 vs. 탐색엔진정보원만족도 • 정보원편리성 vs. 도서관이용만족도 • 정보원편리성 vs. 도서관정보원신뢰도 • 정보원편리성 vs. 도서관정보원이용만족도 • 정보원편리성 vs. 탐색엔진이용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원정확성 vs. 탐색엔진정보원만족도 • 정보원편리성 vs. 도서관정보원신뢰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요소들 중 정보원의 속성에 대한 인식은 다른 다양한 요소들과 교차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선호탐색도구, 도서관에 대한 인식, 도서관이용빈도, 최다이용도서관서비스 등이 정보원의 속성에 대한 인식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요소와의 교차분석에서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4.4 정보이용에 있어서의 집단별 차이 및 상관관계

상관관계를 χ^2 검증으로 살펴본 결과, 상당히 많은 요소들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사항에 대한 교차표 모두를 포함하지는 않고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소들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는 것으로

분석결과를 정리하였다. 흥미롭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교차분석의 결과는 교차분석표를 제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먼저 이용자 그룹은 청소년 이용자와 대학생 이용자로 구분해 살펴보았는데 이용자 그룹의 경우 많은 요소들과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었는데 선호탐색도구($\chi^2=35.389$, $df=4$, $p=0.000$), 도서관 인식($\chi^2=9.723$, $df=4$, $p=0.045$), 최다 이용도서관서비스($\chi^2=25.367$, $df=7$, $p=0.001$),

전자정보원 이용만족도($\chi^2=14.165$, $df=4$, $p=0.007$), 도서관정보원 이용만족도($\chi^2=10.214$, $df=4$, $p=0.037$), 탐색엔진정보원 만족도($\chi^2=13.828$, $df=4$, $p=0.008$), 탐색엔진정보원이용만족도($\chi^2=12.284$, $df=3$, $p=0.006$)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선호탐색도구, 탐색엔진정보원 이용만족도와 χ^2 교차분석 검증 결과는 다음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 이용자 그룹별 선호탐색도구에 대한 χ^2 교차분석

			이용자그룹 * 선호탐색도구 교차표					단위: 명(%)
			선호탐색도구					
			도서관	서점	탐색엔진	온라인 서점	전문주제 웹사이트	전체
이용자 그룹	청소년	빈도	13	8	59	6	28	114
		이용자 그룹 중 %	11.4%	7.0%	51.8%	5.3%	24.6%	100.0%
	대학생	빈도	8	0	98	0	8	114
		이용자 그룹 중 %	7.0%	0.0%	86.0%	0.0%	7.0%	100.0%
전체		빈도	21	8	157	6	36	228
		이용자 그룹 중 %	9.2%	3.5%	68.9%	2.6%	15.8%	100.0%

$\chi^2 = 35.989$ ($df=4$, $p=0.000$)

<표 3> 이용자 그룹별 탐색엔진정보원 이용만족도에 대한 χ^2 교차분석

			이용자그룹 * 탐색엔진정보원 이용만족도 교차표					단위: 명(%)
			탐색엔진정보원 이용만족도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불만족	전체
이용자 그룹	청소년	빈도	27	50	35	2	0	114
		이용자 그룹 중 %	23.7%	43.9%	30.7%	1.8%	0.0%	100.0%
	대학생	빈도	8	63	41	2	0	114
		이용자 그룹 중 %	7.0%	55.3%	36.0%	1.8%	0.0%	100.0%
전체		빈도	35	113	76	4	0	228
		이용자 그룹 중 %	15.4%	49.6%	33.3%	1.8%	0.0%	100.0%

$\chi^2 = 12.284$ ($df=3$, $p=0.006$)

선호탐색도구의 경우 정보원의 신뢰성($\chi^2=38.047$, $df=8$, $p=0.000$), 정보원의 정확성($\chi^2=43.065$, $df=8$, $p=0.000$), 정보원의 신속성($\chi^2=45.664$, $df=8$, $p=0.000$), 정보원의 편리성($\chi^2=61.092$, $df=8$, $p=0.000$), 정보원의 사용용이성($\chi^2=25.575$, $df=8$, $p=0.001$)과 같이 탐색엔진정보원을 속성에 따라 비교한 5가지 요소 모두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보원의 신뢰성은 유일하게 청소년 이용자 집단내 교차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대학생 이용자 집단내 교차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중 정보원의 신속성, 정보원의 편리성과의 χ^2 교차분석 검증 결과는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다.

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정보원의 신뢰성($\chi^2=48.806$, $df=8$, $p=0.000$), 정보원의 정확성($\chi^2=20.889$, $df=8$, $p=0.007$)과 정보원의 편

리성($\chi^2=20.652$, $df=8$, $p=0.008$)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서관의 이용빈도와 관련한 교차분석에서는 정보원의 편리성($\chi^2=41.424$, $df=10$, $p=0.000$)과 정보원의 사용용이성($\chi^2=31.009$, $df=10$, $p=0.001$)과의 교차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최다 이용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한 관계분석에서는 정보원의 신뢰성($\chi^2=43.454$, $df=14$, $p=0.000$), 정보원의 정확성($\chi^2=34.753$, $df=14$, $p=0.002$), 정보원의 편리성($\chi^2=30.783$, $df=14$, $p=0.006$)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정보원활용고려사항의 교차분석에서는 정보원의 정확성($\chi^2=19.194$, $df=8$, $p=0.014$)과 정보원의 편리성($\chi^2=18.734$, $df=8$, $p=0.016$) 요소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정보원의 신뢰 판단기준은 정보원의 신속성($\chi^2=15.691$, $df=8$, $p=0.047$)과의 교차분석에서 유일하게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4> 선호탐색도구와 정보원의 신속성에 대한 χ^2 교차분석

			선호탐색도구 * 정보원신속성 교차표			단위: 명(%)	
			정보원신속성				전체
			도서관 > 탐색엔진	도서관 = 탐색엔진	도서관 < 탐색엔진		
선호탐색도구	도서관	빈도	5	6	10	21	
		선호탐색도구 중 %	23.8%	28.6%	47.6%	100.0%	
	서점	빈도	0	3	5	8	
		선호탐색도구 중 %	0.0%	37.5%	62.5%	100.0%	
	탐색엔진	빈도	5	12	140	157	
		선호탐색도구 중 %	3.2%	7.6%	89.2%	100.0%	
	온라인 서점	빈도	1	3	2	6	
		선호탐색도구 중 %	16.7%	50.0%	33.3%	100.0%	
	전문주제 웹사이트	빈도	1	11	24	36	
		선호탐색도구 중 %	2.8%	30.6%	66.7%	100.0%	
	전체		빈도	12	35	181	228
			선호탐색도구 중 %	5.3%	15.4%	79.4%	100.0%

$\chi^2 = 45.664$ ($df=8$, $p=0.000$)

〈표 5〉 선호탐색도구와 정보원의 편리성에 대한 χ^2 교차분석

선호탐색도구 * 정보원편리성 교차표 단위: 명(%)

			정보원편리성			전체	
			도서관 > 탐색엔진	도서관 = 탐색엔진	도서관 < 탐색엔진		
선호탐색도구	도서관	빈도	8	7	6	21	
		선호탐색도구 중 %	38.1%	33.3%	28.6%	100.0%	
	서점	빈도	0	7	1	8	
		선호탐색도구 중 %	0.0%	87.5%	12.5%	100.0%	
	탐색엔진	빈도	6	31	120	157	
		선호탐색도구 중 %	3.8%	19.7%	76.4%	100.0%	
	온라인 서점	빈도	1	3	2	6	
		선호탐색도구 중 %	16.7%	50.0%	33.3%	100.0%	
	전문주제 웹사이트	빈도	2	15	19	36	
		선호탐색도구 중 %	5.6%	41.7%	52.8%	100.0%	
	전체		빈도	17	63	148	228
			선호탐색도구 중 %	7.5%	27.6%	64.9%	100.0%

$\chi^2 = 61.092$ (df=8, p=0.000)

정보원의 속성과 정보원의 신뢰도 및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정보원의 정확성이 도서관정보원 신뢰도($\chi^2=13.308$, df=6, p=0.038)와 탐색엔진정보원 만족도($\chi^2=28.238$, df=8, p=0.000) 두 요소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정보원의 편리성이 도서관 이용만족도($\chi^2=19.138$, df=8, p=0.014), 도서관정보원 신뢰도($\chi^2=24.945$, df=6, p=0.000), 도서관정보원 이용만족도($\chi^2=21.582$, df=8, p=0.006), 탐색엔진 이용만족도($\chi^2=17.354$, df=6, p=0.008)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다음 〈표 6〉은 정보원의 편리성과 탐색엔진 이용만족도의 χ^2 교차분석 검증 결과를 표로 제시한 것이다. 정보원의 편리성에 따른 탐색엔진 이용만족도에 대한 응답 비율과 같은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각 정보원의 신뢰도와 이용만족도는 Spearman

상관분석을 실행하여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해당 분석의 결과는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7〉의 상관관계분석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도서관정보원 신뢰도와 탐색엔진 정보원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두 변수들 사이에 정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상관분석 결과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분석법은 아니기에 변수들 간에 어떤 인과관계들을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분석결과를 살펴볼 때 도서관 정보원의 신뢰도와 탐색엔진 정보원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서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이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표 6〉 정보원의 편리성과 탐색엔진 이용만족도에 대한 χ^2 교차분석

정보원편리성 * 탐색엔진 이용만족도 교차표 단위: 명(%)

			탐색엔진이용만족도				전체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정보원편리성	도서관 정보원이 더 편리하다	빈도	6	8	3	0	17
		정보원편리성 중 %	35.3%	47.1%	17.6%	0.0%	100.0%
	둘 다 비슷하다	빈도	6	35	22	0	63
		정보원편리성 중 %	9.5%	55.6%	34.9%	0.0%	100.0%
	탐색엔진 정보원이 더 편리하다	빈도	44	75	25	4	148
		정보원편리성 중 %	29.7%	50.7%	16.9%	2.7%	100.0%
전체		빈도	56	118	50	4	228
		정보원편리성 중 %	24.6%	51.8%	21.9%	1.8%	100.0%

$\chi^2 = 17.354$ (df=6, p=0.08)

〈표 7〉 각 정보원의 신뢰도와 이용만족도 상관관계

Spearman의 rho

		전자 정보원 이용 만족도	도서관 이용 만족도	도서관 정보원 신뢰도	도서관 정보원 이용 만족도	탐색엔진 이용 만족도	탐색엔진 정보원 만족도	탐색엔진 정보원 이용 만족도
전자정보원 이용만족도	상관계수	1.000	.534**	.428**	.441**	.346**	.135*	.314**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42	.000
도서관 이용만족도	상관계수		1.000	.334**	.479**	.275**	.161*	.225**
	유의확률			.000	.000	.000	.015	.001
도서관정보원 신뢰도	상관계수			1.000	.382**	.311**	.061	.322**
	유의확률				.000	.000	.359	.000
도서관정보원 이용만족도	상관계수				1.000	.371**	.140*	.410**
	유의확률					.000	.035	.000
탐색엔진 이용만족도	상관계수					1.000	.279**	.471**
	유의확률						.000	.000
탐색엔진 정보원만족도	상관계수						1.000	.526**
	유의확률							.000
탐색엔진정보원 이용만족도	상관계수							1.000
	유의확률							.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만 13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중고등학교 재학생)과 19세에서 29세 사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정보이용에 대한 개괄적인 양상, 도서관과 검색엔진 정보원에 인식 및 만족도 등을 살펴보고 더불어 각 요소들의 관계성을 찾고자 하는 시도에서 시작된 연구이다.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기술통계 및 연관통계분석을 진행해 수집된 데이터의 의미적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도서관의 브랜드는 여전히 “책”을 통해 대변되고 있었다는 것과 도서관 정보원의 신뢰성은 상당히 높히 인정받고 있으나 도서관 이용은 저조하며 실제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검색도구는 검색엔진이 압도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 이용자는 관심콘텐츠를 훑어보기 위한 온라인 활동이 크며 청소년 이용자의 경우 여가생활을 이용하기 위해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상 사용자들의 검색엔진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원 평가요소의 통계 결과와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신속하고 편하게 사용하기 쉬운 정보원을 선호하는 것이 청소년과 대학생 이용자의 정보원 활용을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여겨진다.

몇 가지 표트 제시된 부분을 통해 볼 수 있는 청소년과 대학생 이용자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이 두 이용자 집단은 유사한 정보원 이용 또는 정보원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나 청소년 이용자의 결과에서 전문주제웹사이트를 선

호하는 이용자가 다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부분이 특이할 만한 부분이다. 이는 대학생 이용자보다 청소년 이용자가 다양한 정보원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웹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문주제정보원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으며 사용해보니 쉽고 빠르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전문주제웹사이트를 더 선호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해석하게 되는 부분이다. 이는 이용자 집단간의 차이 또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원 선호도가 더욱 웹정보원 선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는 부분으로 추후 광범위한 이용자 분석과 더불어 신세대 이용자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과 함께 검증되어야 할 중요한 결과라 판단된다.

도서관은 시설·설비 등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당히 많음을 볼 때 도서관의 현재 환경에 대한 문제를 유심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겨지는 부분이며 책발견의 용이성을 확보해달라는 응답을 비추어봤을 때 도서관 자료분류, 서가시스템에 대한 고민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다양한 χ^2 교차분석표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청소년과 대학생 이용자는 정보원의 편리성과 신속성 등이 정보원을 선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대체로 검색엔진이라는 정보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들은 검색엔진정보원의 신뢰성을 다른 요소들에 비해 낮게 평가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들의 정보이용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되진 않는다.

본 연구는 청소년과 대학생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는 기초 연구의 역할을 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도서관 이용자의 인식 변화를 기능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향후 사회 뿐 아니라 도서관에 있어서도 중점적인 이용자로 자리매김할 이 두 집단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그 차이를 분석한 가운데 도서관의 방향성을 모색할 기초 자료로 사용하게끔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적은 표본 수와 한정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대상 이용자 집단과 대상을 기반으로 한 광범위한 조사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 여겨진다. 이 연구와 같이 사회 전반의 인식과 관련된 연구들은 상당히 많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야만 분석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이다.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간절한 부분이다. 또한 최근 핫이슈인 빅데이터를 적용한 연구도 실용적일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한 연구들이 다른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더욱 확대되어 후속연구로 진행되어 데이터가 모아진다면 도서관의 발전방안 모색에 대한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나현, 이정연, 정은경, 장길수, 윤혜진. 2013. 넷세대 이공계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의 학업 및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이용과 정보기기 활용 비교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0(2): 269-295.
- 김성은, 이지연. 2013. 청소년의 가상 정보 공간에서의 정보 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4): 155-173.
- 김현희, 장유리. 2014.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이 인문사회과학 대학생들의 정보추구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3): 237-264.
- 박현모, 이지연. 2013. 도시와 농어촌 청소년의 일상 정보 행태 비교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1): 71-92.
- 송기호. 2013. 학교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전개방향과 활성화 전략.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2): 49-69.
- 이경혜, 강현진. 2002. 경남일부 청소년의 인터넷 식생활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35(1): 115-123.
- 이성식, 전신현. 2012. 인터넷 사용, 일상긴장, 비행의 관계: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형사정책연구』, 91: 293-318.
- 이은주, 이제환. 2011. 대학생의 학습활동에 있어 도서관의 의미: P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정보행태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3): 105-126.
- 이정미. 2015. 청소년의 도서관 인식 및 정보원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3): 351-370.
- 장혜란. 2013. 대학생의 인터넷 정보윤리 준수 실태 측정과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1):

327-347.

- 정진수. 2009.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의 비판적 분석 I - 학습을 위한 정보이용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2): 143-153.
- 최문정, 정동열. 2013a. 장독립-장의존 인지양식이 대학생의 정보탐색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1): 125-147.
- 최문정, 정동열. 2013b. 메타인지가 대학생의 정보탐색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75-101.
- 하은혜, 장윤금, 권나현. 2011. 청소년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평가 - '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2): 181-200.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2009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보고서.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인터넷으로 인한 유·청소년 행동변화 관련 실험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보고서.
- Anglada, L. 2014. "Are Libraries Sustainable in a World of Free Networked, Digital Information?" *El profesional de la información*. Noviembre-diciembre, 23(6): 603-611.
- Byrum, Jr. J. D. 2005. Recommendations for urgently needed improvement of OPAC and the role of the National Bibliographic Agency in achieving it. In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71th IFLA General Conference and Council. "Libraries - A Voyage of Discovery"* Oslo, Norway (vol. 1, pp. 1-13).
- Connaway, L. and T. Dickey. 2010. *The digital information seeker: Findings from selected OCLC, RIN and JISC user behaviour projects* [online]. [cited 2015.5.3]. <<http://www.oclc.org/research/themes/user-studies/dis.html>>.
- De Rosa, Cathy. 2005. Perceptions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resources. *A report to the OCLC membership. OCLC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Inc.* [online]. [cited 2015.5.3]. <<http://www.oclc.org/en-asiapacific/reports/2005perceptions.html>>.
- Gauder, B. 2011. Perceptions of Libraries, 2010: Context and Community. *A Report to the OCLC Membership. OCLC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Inc.* [online]. [cited 2015.5.3]. <http://www.oclc.org/content/dam/oclc/reports/2010perceptions/2010perceptions_all.pdf>.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ang, Hye Rhan. 2013. "Measurement and Analysis of the Internet Ethics Observance among

- Undergraduat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1): 327-347.
- Choi, Moon Jung and Dong Youl Jeong. 2013a. “A Study on Effect of the Cognitive Style of Field Dependence/Independence to the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1): 125-147.
- Choi, Moon Jung and Dong Youl Jeong. 2013b. “A Study on the Effect of Metacognition to the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2): 75-101.
- Chung, Jin Soo. 2009. “A Critical Analysis of the Studies on Children’s and Adolescents’ Information Seeking and Use Part I: Focusing on Information Seeking and Use for Learning.”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2): 143-153.
- Ha, Eun Hye, Yunkeum Chang, and Nahyun Kwon. 2011. “An Evaluation of a Youth Reading Promotion Program: Focusing on ‘1318’ Bookworm Program.”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2): 181-200.
- Kim, Hyun-He and Yoo-Ri Jang. 2014. “The Influence of Enneagram Personality Styles on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tud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3): 237-264.
- Kim, Sung Eun and Jee Yeon Lee. 2013. “Research on Virtual Information Grounds and the Information Use Behavior of Korean Youths.”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4): 155-173.
-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09. *2009 Internet Use*.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Research Report.
-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0. *An Experimental Study about Children and Adolescents’ Behavior Changes caused by Internet*.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Research Report.
- Kwon, Nahyun, Jungyeoun Lee, Eunkyung Chung, Gilsoo Chang, and Hyejin Yoon. 2013. “Comparative Analyses of the USes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in the Everyday Life of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Majoring Science and Engineering.”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2): 269-295.
- Lee, Eun-Ju and Jae-Whoan Lee. 2011. “Meanings of Academic Library in Learning Activities of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3): 105-126.

- Lee, Jeong-Mee. 2015. "An Exploratory Study on Adolescent's Perceptions of Library and their Information Us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3): 351-370.
- Lee, Kyung-Hea, Hyun-Jin Kang, and Eun-Sil Her. 2002. "Adolescent' Internet Utilization Status of Dietary Information in Kyungnam."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35(1): 115-123.
- Lee, Seong-Sik and Shinhyun Jun. 2012. "Internet Usage, Strain, and Delinquency: Analyzing Youth Panel Data."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91: 293-318.
- Park, Hyunmo and Jee Yeon Lee. 2013. "A Comparison Study of the Everyday-Life Information Behavior of Urban and Rural Adolescents."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1): 71-92.
- Song, Gi-Ho. 2013. "Progress and Activation Strategies of Information Service in the School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2): 49-69.